

'주말가족스포츠캠프'

23~24일, 한탄강 글바위레프팅캠프

국민생활체육포천시협의회는 오는 23일과 24일 1박2일간 2005 주말가족 스포츠 캠프를 운영한다.

가족과 이웃간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 마련과 시민과 함께 하는 협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주말가족 스포츠 캠프는 강원도 한탄강 글바위레프팅 캠프에서 개최된다.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와 포천시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캠프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80명이 참가하게 된다.

캠프에서는 레프팅, 캠프파이어, 가족참여체육활동 등을 실시하게 되며, 2005 한탄강여름축제에도 참가하게 된다.

참가는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단 초등학교 3학년이하 어린이는 참가비가 없다. 참가문의는 포천시생활체육협의회(031-531-8888)로 하면 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축구협회장기 중·高 축구대회

포천중고-포천중優勝... 의전행사 생략 경기진행



포천시 축구협회(회장 박상욱)는 축구를 통한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 개최한 제1회 포천시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고등부에서 우승한 포천중고 선수들이 축구협회관계자들과 함께 했다.

포천시축구협회(회장 박상욱)는 축구를 통한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 지난 9일 오전 속에서 제1회 축구협회장기 중·고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포천종합운동장 및 대진대학교에서

분산 개최된 이번 대회는 관내 중학교 6개팀과 고등학교 6개팀이 참가해 우열을 가렸다.

대회 경기 방법은 조별리그전으로 중·고등부 모두 예선 리그전을 통해

각 조 1위팀이 결승전에 올라 승부를 가렸다.

대진대학교 운동장에서 치러진 중학교 A조는 일동, 영북, 동남중이며 B조는 영중, 갈월, 포천중이었으며, 포천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고등학교 A조는 포천중고, 영북중고, 일동중고이며 B조는 동남고, 관인고, 포천고가 경기를 치렀다.

대회 결과 중등부에서는 동남중과 포천중이 결승전에서 만나 포천중이 우승을 차지했고, 고등부에서는 포천중고와 동남고가 결승전을 치러 포천중고가 우승했다.

대회 우승팀인 포천중고와 포천중고에게는 우승기와 우승컵이 수여됐다.

한편, 박상욱 회장은 "이번 대회부터 엘리트 경기 종목에는 기관 및 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의전 행사를 과감히 생략했다"며 "앞으로 청소년의 체육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개최되는 대회는 의전행사 없이 대회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17

종목별체육외장

포천시사격협회

조돈법 회장

사격장 건립하여 선수育成

지난해 11월 17일 포천시사격협회는 최근 레저와 스포츠 종목으로 급속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포천지역에 사격을 널리 보급하고 저변확대를 위해 정식 출범했다.

출범과 함께 체육회 기행단 체로 가입, 지난해 11월 17일 회장에 취임한 포천시사격협회 조돈법(사진·39) 회장으로 부터 포천시 사격협회의 출범 이후 발전상을 들었다.

사격협회는 출범 당시 조돈법 회장을 위시해 5명의 부회장과 연재장 사무국장, 김경남 전무이사, 고조홍 현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구성해 출범했다.

조돈법 회장은 포천중고를 졸업, 어룡동에서 (주)남성토건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기업인 중의 하나다.

조 회장은 사격의 불모지인 포천에 사격협회를 창립, 사격인구의 저변확대와 보급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기반이 부족한 현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 회장은 "출범 당시에는 사격을 활성화시켜 생활체육 뿐만 아니라 엘리트 체육까지도 확대, 가까운 미래에 포천에서도 사격 국가대표를 육성할 목표"라며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을 세웠던 사격장 건립이 늦어지고 있어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사격장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는 사격의 위험성 때문이라는 조 회장은

"현재 사격장 건립 등 협회의 창립과 함께 부수적으로 이어져야 할 대회 개최 등이 치러지지 않자 사격협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사실이다"며 "사격의 종목의 특성 때문에 사격장 부지선정 및 건립이 늦춰지고 있어 당분간 협회의 운영은 파행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포천의 사격 동호인 수는 경찰서에 총기를 반납하는 인원이 100여명정도로 분포해 있다"며 "실제 동호인 수는 이보다 많겠지만 우선 이들을 양성화시켜 사격을 레저로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 "사격 동호인들은 1년에 최소 1~2회 정도 사격의 경험이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격은 소총, 권총, 클레이, 러닝타겟 등의 종목에서 올림픽 17개의 금메달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조돈법 회장
포천시사격협회

금메달이 걸려 있는 종목으로 육성만 된다면 효자종목임이 틀림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사격협회를 창립한 것 역시 사격의 발전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격은 우리나라처럼 정신력이 우수한 나라에서 육성하기 좋은 종목이다"며 "초·중·고와 대학, 일반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사격 강국의 대부 선수를 포천에서 키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조 회장은 현재 사격장 건립을 위해 준비중이다.

"우선 교육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학교의 잉여부지 등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볼 생각이다"며 "사격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5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재원마련은 일단 부지선정이 있을 후 가능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러 "현재 대한사격연맹 관계자와 사격장 건립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며 임기중 사격장 건립에 대한 의지를 불신했다.

사격장 건립을 위해서는 사격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조 회장은

내년 기초단체장 선거 이후 사격장 건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격 동호인들의 양해를 구했다.

한편 포천시 사격협회는 올해 10월 경 화현면 웨스턴밸리에서 제1회 포천시체육회장기 사격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 회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포천시 사격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 사격협회는 지난해 11월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창립기념식을 갖고 사격인구의 저변확대와 사격 발전을 위해 출범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 합기도대회 중등부 준우승

포천시가 제3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합기도대회 중등부에서 이천시에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합기도의 저변확대와 보급을 위해 지난 2일 안산올림픽기념관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포천시는 2부 중등부에서 796점을 획득한 이천시에 이어 774점으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가 주최한 이

번 대회에 포천시는 이운봉 감독을 단장으로 이군천 주무, 배만수 코치와 초등부, 중등부, 고·대·일반부 선수 14명 등 19명이 출전했다.

중등부 준우승을 달성한 포천선수단은 고유석(낙법), 김병무(발차기), 이재문(호신술), 강민국(보조)이다.

한편 이번대회의 종합우승은 안산시(1부)와 이천시(2부)가 차지했다.



"탁구심판에 도전하세요"

탁구 인구의 저변확대와 우수심판 육성을 위해 2005년도 심판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습회를 통해 대한탁구협회(이소광(64) 경기이사가 탁구 이론과 실기를 통해 심판 기능과 역할 등을 교육했으며 탁구심판 자격증 신청도 함께 실시했다.

경기도탁구협회(회장 박정규)와 포천시탁구협회(회장 이기양)는 지난 9일 포천비엘트움 소극장에서 심판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습회를 통해 대한탁구협회(이소광(64) 경기이사가 탁구 이론과 실기를 통해 심판 기능과 역할 등을 교육했으며 탁구심판 자격증 신청도 함께 실시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한국 바이애슬론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김용주, 회장배 바이애슬론 남고부 스프린트 4km 정상

인터뷰

일동중고 김용주(1년) 선수가 지난 달 29일 강원도 용평 강원도립 바이애슬론경기장에서 개최된 제22회 회장배 하계바이애슬론 대회 남고부 스프린트 4km 개인전에서 16분51초9를 기록해 강원 고성고 전재영 선수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이번 우승은 김용주 선수가 아직 1학년이던 점과 기량이 뛰어난 2, 3학년 선수들을 제쳤다는 점에 있어 주목된다.

중학교 1학년때부터 바이애슬론을 시작했다는 김 선수는 "지난해 겨울 심한 슬럼프가 있었지만 김광명 코치 등 선배와 동료들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며 "하계훈련기간 중 웨이트 트레이닝 등 기초체력을 충분히 만들어 겨울 대회에서 더욱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대회의 우승 소감에 대해



김용주 선수
일동중고 1년

"형들을 제치고 우승한 것에 놀랐다"며 "앞으로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 비인기 종목인 바이애슬론을 알려 저변확대와 보급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주) 오리표 (싱크) 주방가구

싱크대, 붙박이장, 저실장, 신발장 및 각종 수납장 취급!!!

인간중심의 부엌문화를 창출하는 "오리표 주방 가구"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 설계 무료 A/S를 상담하여 드립니다.

